

지역 中企, 내수부진·환율하락에 경기전망 ‘뚝’

8월 건강도지수 81.0

올들어 최저치로 떨어져

세월호 참사 소비 위축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이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8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경기전

망지수'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전월(88.3)보다 7.3포인트 하락한 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치일 뿐더러 지난해 2월 7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SBHI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 SBHI를 보면 생

산과 수출, 원자재조달 등 전 항목이 전달보다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생산이 87.7에서 83.9로 3.8포인트 떨어졌고, 내수도 84.0에서 81.1로 2.9포인트 하락했다. 또 수출(77.8→77.1), 경상이익(83.3→78.0), 자금사정(84.6→82.1), 원자재조달사정(97.5→89.9) 등 모든 항목의 경기 전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7월의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84.3%)을 꼽았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달(63.0%)과 비교하면 21.3포인트나 높아져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자금조달곤란

(25.3%)과 인건비상승(25.3%), 원자재가 격상(24.1%)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내수시장의 상승분 위기가 보이는 않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 계절적 비수기 요인 등이 체감 경기 전망을 끌어내렸다"고 풀이했다.

한편, 전국 중소기업체 SBHI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87.4)보다 5.8포인트 하락한 81.6으로 집계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8.81 (+14.96)

▲ 금리 2.51%(+0.01)

▼ 코스닥 552.98 (-9.80)

▲ 환율 1026.30원(+0.40)



2050선 코앞... 모처럼 활짝
28일 코스피가 외국인과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4.96포인트(0.74%) 오른 2048.8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7개월여만에 장중 한 때 2050선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코스피 2050선 육박... 연중 최고치 경신

14.96포인트 오른 2048.81

코스피가 2050선 턱밑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했다. 장중에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050선까지 돌파하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28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4.96포인트(0.74%) 오른 2048.81에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1포인트(0.10%) 오른 2035.96으로 시작해 외국인과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중 2040선을 뚫고 올라선 코스피는 오후 1시30분 이후부

2050선까지 넘어섰다. 코스피가 장중 2,050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7개월여만이다.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가 호조인데다 하반기 정부의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져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지수의 발목을 잡던 펀드 환매 물량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소화됐을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026.3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연합뉴스

LED 인증 일원화·첨단산단 버스 정류소 3곳 추가 설치

광주상의 건의 '손톱 밑 가시' 7건 정부 반영

#1.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LED조명제품은 KS(국가표준)와 KC(기술기준), 고효율 인증 등을 중복 취득해야돼 비용 등이 부담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KS와 KC 기준의 일치화 작업을 진행하고, 시험면제 항목을 발굴할 계획이어서 시험비용은 인하될 전망이다.

#2. 광주 첨단 산단은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매일 출·퇴근 전정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최근 첨단 산단에는

시내버스 정류소 3개소가 추가로 설치됐고,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구간은 지난 5월 마을버스가 도입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한 '손톱 밑 가시' 7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상의가 지난 4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과 규제개선 추진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건의한 결과 LED조명 인증제도

일원화 등 7건이 수용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

산자부는 먼저 임대 산단 내 재임대를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의 부지 임대 계약사항 '재임대 불허 특약조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계열사 등의 동반임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문제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도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지역의 2배에 달해 입주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

들어 올해 안에 관련 기업과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의견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의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만㎡까지만 설치 가능했으나 이 또한 올해 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5000㎡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사고와 범죄 우려가 있는 산단 지역 대형차 불법 주차장 문제의 경우도 광주시에서 진곡 산단에 건설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통해 개선했다.

이외에도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국공유 재산 임대기간 연장, 도시가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조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광주지역본부

청렴도·업적평가 전국 1위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사진)가 올해 상반기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종합업적평가에서도 전국 수위를 차지했다.



28일 농협지역광주본부에 따르면, 부패취약분야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이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상반기 투명성·책임성·부패저수 등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본부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6개 시·도지역본부와 9개 도지역본부 등 2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도 광주본부는 전국 6개 시·도지역본부 가운데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본부는 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교육지원 등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울산에 연산 5만t 규모 폴리케톤 공장 건립

(세계최초 신소재)

1250억 들여 남구 용연2공장

첨단 신소재 기업 효성이 28일 연산 5만t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을 울산 남구 효성 용연2공장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폴리케톤은 효성이 지난해 세계최초로 개발했으며 기존 산업소재보다 충격강도·내화성·내마모성이 뛰어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다. 공장 건립엔 1250억원이 투자된다.



효성은 28일 울산 용연2공장에 연산 5만t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을 세운다고 밝혔다. 공장은 현재 조정동, 탱크야드, 공정시설 건설을 위한 지반평탄화 작업이 한창이다. <효성 제공>

효성은 주요 설비 발주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위한 준비 단계를 이번 달 중순에 마쳤으며 내년 3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폴리케톤 영업 및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폴리케톤이 상용화되면 자동차와 전자전자 분야 내외장재나 연료계통 부품, 타이어코드,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 사용된다. 폴리케톤을 적용할 수 있

는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66조원으로, 연간 5% 이상 지속 성장할 것으로 효성은 전망했다.

조현상 부사장(화학PG 최고마케팅·매니지먼트책임자)은 "폴리케톤은 효

성이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폴리케톤 공장을 조속히 완공해 세계 화학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